똑똑한 자들의 이상인 초월, 그리고 제사장

(히7:1~28)

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5.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똑똑한 자들의 이상인 초월과 자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똑똑한 자들의 이상인 초월 그리고 제사장'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그냥 저냥 똑똑한 사람이 있고, 꽤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주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이 인간세상에서 정한 엘리트.
그들의 바람은 인간세상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서 일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꽤 똑똑함을 지나서 아주 많이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아주 많이 똑똑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이상적인 인간상을 쫓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일등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간됨을 이상적인 상태로 끌어 올리려고 하는 공통된 관심이 있는데, 그 이상적인 인간형이 꽤 똑똑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똑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들로서, 공자! 굉장히 많이 똑똑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같은 가똑똑이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근데 그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인간은 군자입니다.
또 맹자도 아주 많이 똑똑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이 대장부에요, 호연지기가 완전히 배어버린 그런 대장부.
그리고 노자!
아~ 말할 수 없지요 똑똑하심이 극에 달한 분 아닙니까? 이분의 인간 이상형은 성인입니다.
그리고 이 노자의 사상과 맥을 같이하는 장자가 있어요, 진인이에요 진인.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인간상.
부처가 되어서, 어리석은 대중들에게 불법을 설파하고 하는 이게 보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간상들이 있습니다.

서양으로 가면, 철학자 헤겔이 얘기한 절대정신, 니체의 초인.
근데 이런 인간상의 공통점은, 니체의 초인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에 언급한 모든 정말 많이 똑똑하신 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지양했던 이상적 인간형의 특징은 '초월과 자유'입니다.
어디로부터의 초월입니까?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의 초월입니다, 인간세상으로부터의 초월.
그래서 무위자연을 사상의 중심축으로 하는 도교의 장자가 말하는 진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묘사해 놓은 것을 잠깐 보면 이런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것에 도달한 언어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도가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게 도에요.
자기 현연입니다, 자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연을 이끌어가는 도에 도달하는 인간이 진인인데, 이렇게 이 도에 도달하면은 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초월이 어떤 거냐?
역경이 오잖아요? 뭐 돈이 안 벌리고, 건강이 안 좋고, 자식들이 잘못 되고 뭐 재난이 닥치고… 이런 역경이 오면, 역경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역경을 거역하지 않아요.
또 살다 보면 성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그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랑하고 싶은데도 참는 게 아니라, 이 진인(眞人) 참 眞자, 이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진인은, 아예 자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바람으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일도 꾀하지를 않습니다.

더 육체적인 감각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아주 높은데 올라가면 우린 공포증이 일어나잖아요? 높은데 올라가도 두려움이 없고, 물속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뜨겁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절대자유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물속에 들어가서 몸이 젖는 것은 물리적인 일인데, 그 사람의 마음은 젖음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에 들어가도 뜨거움이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초월했음을, 절대자유를.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을 새삼스럽게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새삼스럽게 미워할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감정의 표현들이 사계절의 변화와 같이 자연스러워서, 이 외계의 사물과 조화를 이루어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 외부의 자연세계와 일체가 돼버리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군자다 대장부다 성인이다 진인이다 보살이다, 모두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많이 똑똑한 사람들의 몸부림인데,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영적으로 고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초월하고자 하는, 똑똑한 지독하게 똑똑한 고아들의 몸부림,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서 일등하려는 마음 자체가 얽매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 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일등하려고 하지를 않고.
근데 꽤 똑똑한 사람들은 얽매인 상태에서 얽매임에 설득돼가지고, 어쨌든지 일등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언급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때 신은 가정된 신이에요, 진짜 신의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답인데 하나님은 알 수가 없으니까 나타나는 일이, 자기가 신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주 많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답인데, 하나님은 알려지질 않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알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야 이게 해결이 되겠다.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일들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신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해결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이 영적으로 고아들의 몸부림이긴 하지만, 역시 기독교 선민들에게도 똑같이 요청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초월해야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선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민으로서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존재가 도사들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월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극히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무슨 얘깁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있으면서,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쪽으로 사랑의 마음을 돌림으로써 세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가씨가 결혼할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결혼할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때 다른 남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초월이고 자유입니다.
모~든 남자로부터 자유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남자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모든 남자가 결혼할 대상의 가능성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장단점을 따지기 위해서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남자가 완전히 결정되고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나니까, 모든 남자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에요.
동료 직원이고, 동창생이고 오빠고 다 남동생이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지요?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도록 창조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랑의 재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좋게 창조하신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 존재의 의미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들리는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배설물과 같고 쓰레기 같고, 아~무 귀한 것이라고는 없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필연입니다.
인격적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필연.
좋아할래도 좋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좋아할 것이 천지에요.
가족으로부터,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님 형제자매 애인 뭐 그리고 돈 보석 그리고 승진자리 명품아파트 명품자동차 인기… 좋아할 게 천지에 정말 가득 찼어요, 천지에요.
이런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좋아할 만한 것, 귀에 들리는 좋아할 만한 것, 만져지는 좋아할 만한 모든 걸 다 제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좋을 걸 잔뜩 주셨어요.
아비 집, 얼마나 안정되고 좋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

그것 버리면서 하나님 사랑 표현하라 그러신 거예요.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특별히 예뻐요, 그 예쁜 것이 가실 줄 몰라 세월을 타지 않습니다.
그런 아내를 줬어요, 그렇게 예쁜 아내를 버림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게 합니다.
자식도, 그냥 결혼하자마자 난 애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곱 여덟 아홉 명이 있는 중에 있는 한 애기가 아닙니다.
75세 때 약속하시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100세에 얻은 아기입니다.
좋아도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자식을, 청년이 되었을 때 바치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의미에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합니까? 초월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고아들은, 이 세상에 묶여서 일등하려고 사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잘못 됐거든요, 그 정도를 알 정도로 똑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분명히 뭔가가 답이 있긴 있는데, 답이 뭔지 답에 해당되는 존재가 알려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답의 자리에 서려고 이상적인 인간형을 만들어 낸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선민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을 초월해야 된다고 하는 본질적인 과제와 제사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에,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러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시켜나가는 과정이에요.
유대인들의 걱정이, 예수님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성전생활도 없어지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중재역할을 해주는 제사장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무도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론의 자손인 레위지파 속에서 나온 모든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다 합쳐도 예수님 한분만큼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제사장직의 본질적인 직무가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초월과 자유를 얘기합니까?
그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냐?
선민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초월과 자유의 상태로 가야되는 사람들인데, 이 초월과 자유가 가능케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 제사장들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직분이, 구약에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불안전하게 이루어져 나가다가,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호소력 있게 설득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등장을 시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정말 뜬금없이 앞에 전혀 설명 없이, 누구의 자손이고… 뭐 이런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전혀 없이, 아버지 언급도 없고 어머니 언급도 없고, 그 멜기세덱의 자손이 누구라는 얘기도 없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4개 연합군에 왕들의 군대에 의해서 끌려갈 때,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을 데리고 올 때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리품 중에 십일조를 받았을 때, 축복기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뜬금없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
그렇게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레위지파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일체될 수 있는 예표와 본체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림자와 본체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림자인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속에서 멜기세덱의 이름을 빌어 가지고, '의의 왕이요 살렘 평강의 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의와 평강이라는 게, 선민들이 도달해야 될 이 세상에 대한 초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초월의 내용이 의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의와 평강, 이 세상으로부터의 초월을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의와 평강,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이 있고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의의와 평강의 주인공들의 되어 지면서 세상을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자와 맹자와 노자와 장자와 석가모니가 애달프게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간상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으로써 대제사장 되심으로써 그냥 은혜로 주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상이,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인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요 불교인들한테도, 스님들한테도 그리고 도교의 도사들한테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군자와 대장부한테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라!'

그러면 이 의의와 평강이 뭡니까?
초월의 두 가지 측면인데, 의가 뭐지요?
의는 법에 맞는 거예요, 규칙에 들어맞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라 그러면 자꾸 정의와 공의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돼요, 근데 이것까지도 포함하

면서, 피부에 닿은 의미로서의 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
제가 청국장을 좋아하는데, 저의 집사람을 청국장을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청국장을 끓이면서 맛을 보지 않아요, 그게 싫다고.
근데 그렇게 싫은 것을 저 때문에 만들어요.
그리고 청국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눈을 치켜뜨면서 나를 주시합니다.
뭘 기다리느냐? 내가 청국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딱 넣으면,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캬~ 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 카~ 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청국장을 한 입에 떠넣고 카~ 소리가, 야~ 맛있다 카~, 이게 집사람에게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청국장을 끓이는데, 박 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끓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일 부자인 이 건희 씨의 입맛을 위해서 끓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끓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끓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입맛을 위해서.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입맛에 맞아 떨어지는 상태가 의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 해주는 거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입맛에 맞는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의를 위해서.
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셨습니까?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입맛은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갖 좋아할만한 모든 것, 더군다나 이 좋아할 것들은 이 세상에서 가득 있는데, 만져지는 것들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합니까? 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끌려가지요.
근데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좋아하는 것들의 이 강렬함을 뿌리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절하십니다.
카~ 그러십니다, 카~
제가 기가 막힌 청국장을 입에 넣고 카~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당연히 끌려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좋아요, 명품이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간 게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다 제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카~ 하나님 졸도하시는 겁니다.

‘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정말 죽겠다,’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것들을 그동안 마음이 좋아했던 것이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뿌리치는 거고, 우리 마음에서 더 이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일등하고 싶어서, 일등 한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에 든다하는 것이 일등 아닙니까?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들이 각 학교에서 일등 하던 자들 아닙니까? 왜 일등 합니까? 서울대학 기준에 맞으려고, 서울대학에서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와라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종속되어 있는 거고, 세상에 얽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마음에 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떤 단체고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룹이고 그 어떤 대상에게도 마음에 들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이 땅 바깥에 계시는, 세상 바깥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이 세상을 다~ 빼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보시면, 내가 마음에서 이 세상에 좋아할 만한 것들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로 죽어버리면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고 싶고, 하나님 입맛에만 맞고 싶어서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은 카~ 하십니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럼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마음의 평화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하고, 입김으로 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실 때, 그 제자들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순절 이후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조차도, 문을 박차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삶은 어려웠어요.
붙잡혀서 얻어맞고 터지고 맨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을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평평해 지는 것, 굴곡이 없는 것, 이게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평강입니까?
이 세상의 굴곡이 어떻게 되든지, 정점을 찍을 때던 골짜기에 내려갈 때던 상관없이, 아무리

굴곡이 심해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유지되고 있는 평화가 평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앞에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카~ 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세상의 인정에 대해서 죽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이게 의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고만 가만 계십니까?
제가 청국장 먹고 맛있으면 한 마디해요, 아~ 나 참 결혼 잘했어.
'결혼 잘했어'가 뭐에요? 연합이 잘 됐다 이거에요. 연합의 결과, 당신과 부부로 맺어진 게 고맙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워서 당신의 입맛에 맞게 되면, 가만두시지 않고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껴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오신 거로 끝납니까?
그냥 fact로 끝나요? 사실입니까? 그냥 사실로 끝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지구가 두 쪽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마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신 거고, 사도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 거고, 베드로가 내일 참수형을 당하게 돼있는데도 잠자고 있는 거고, 사자 밥이 되고 불에 타 죽는데도 자식과 함께 손잡고 순교하는 겁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들어와요? 하나님 입맛에 맞는 상태의 인격이 됐으니까.
이걸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구약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이걸 완벽하게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완벽하게 해냅니까?
멜기세덱으로 예표 되었던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카~ 매 순간 카~ 카~ 하도록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한 게 없어요, 십자가의 주님만 받아들이면 되요.
그렇게 하나님이 카~ 하시면서 내게 의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하나님 안으로 끌어당기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군자도 아니고 대장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진인도 아니고 보살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고아가 아닌데.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그 영적 고아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초월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선택 받았습니다.
이 선택의 특권을 마음대로 엔조이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주 똑똑한 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이상적 상태를,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은혜로 얻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가 무효화 되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내내 세상을 초월한 자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